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조 은 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조 은 지

인 준 서

조은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 결과에서 언어발달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3명의 아동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7년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 1~2회, 회기당 40분,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아동의 언어와 행동을 관찰하여 세부적인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를 향상시켰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사후 측정결과, 3명의 대상 아동 모두가 수용 언어의 향상을 보였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 언어를 향상시켰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사후 측정결과, 3명의 대상 아동 모두가 표현 언어의 향상을 보였다. 즉,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 수준을 향상시켜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적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1. 다문화가정의 이해	6
1) 다문화가정의 유형	6
2)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및 특성	7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10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환경	10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12
3. 노래중심 음악치료	15
1) 음악과 언어	15
2) 언어발달을 위한 노래의 치료적 적용	17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측정도구	21
3. 연구설계 및 절차	22
4. 음악치료 프로그램	23
5. 자료분석	30

IV. 연구결과	31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	31
1) 아동 A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32
2) 아동 B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34
3) 아동 C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36
V. 결론	38
1. 결론 및 논의	38
2. 제언	41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22
<표 III-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24
<표 III-3> 음악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24
<표 III-4> 회기별 음악치료 프로그램	26
<표 IV-1>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32

그림 목 차

<그림 IV-1> 아동 A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33
<그림 IV-2> 아동 B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35
<그림 IV-3> 아동 C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3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 2015년 다문화 인구는 174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에 달하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1%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곧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09년 약 10만 명에서, 2015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행정자치부, 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함께 국내 초·중·고 전체 재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011년 0.55%에서 2016년 1.6%로 5년간 3배 증가하였다(교육부, 2016).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아동의 감소와 대비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2050년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로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이들 인구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상심, 2011).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아동들을 둘러싼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문화 아동들이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다(배소영 외, 2009; 황상심, 정옥란, 2008). 또한 이러한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탐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되고 있다(김정은 외, 2014; 배소영 외, 2009, 황상심, 정옥란, 2008).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가정이 약 60%이며, 어머니의 약 72%는 한국에 10년 미만으로 거주하

였고, 어머니의 약 32%는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수준 검사결과에서 어머니의 약 32%가 낮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가족의 기대에서는 약 43%가 보통 혹은 낮은 수준의 관심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 중 많은 수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가족의 낮은 관심 등으로 인해 초기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황상심, 2011).

다문화 아동은 조음음운 발달, 의미론, 구문론, 이야기 산출 등의 다양한 언어발달 영역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발달 수준을 보여(권미지, 2012; 오소정, 김영태, 2014; 최미현 외, 2012)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은 곧바로 학령기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며 특히 어휘력과 독해, 쓰기 능력의 부진은 학령기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권희연 외, 2010). 이러한 언어와 학습에서의 어려움은 또래로부터의 소외와 아동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교 적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김혜영, 전은주, 2010).

아동기는 언어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언어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의사소통, 사회성, 정서, 인지 등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최애나, 2012).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언어 발달의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09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다문화 아동의 발음, 음운, 구문, 수용·표현어휘, 화용, 읽기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며(강금화, 황보명, 2010; 공미경, 김성

수, 2012; 김성수, 이상경, 2015; 김영란, 김영태, 2011; 김은하, 정경희, 2015; 이수정 외, 2008 최미현 외, 2012)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하였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이뿐 아니라 다문화 아동에게 직접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언어발달지도사의 지식이나 기술을 아동에게 단순히 주입하고 학습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직접적인 학습의 동기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언어발달지도사들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한 이론적 교육 외에 심리(행동수정)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김수진, 2015). 최근 예술 치료는 이러한 기존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재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 치료 연구는 음악, 미술, 원예와 같은 활동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 자기표현,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권희진, 2012; 최애나, 2012; 하승민, 고미옥, 2011). 이 중 음악은 소리 자극으로 아동의 반응을 유발하여 자연스러운 참여와 교류를 격려하므로, 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을 촉발하는 데에 좋은 치료적 매개가 될 수 있다(최병철, 2006). 음악은 의사소통을 가르칠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 리듬, 템포, 음정 등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가사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Grant, 1989).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아동에게 음악은 잠재된 에너지와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정현주, 2005).

언어와 음악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언어는 기능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의 역할로, 음악은 심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의 역할로 기능해 왔다(Thaut, 2005/2009). 말에 리듬과 억양이 있듯이 노래에도 리듬과 선율이 있다는 점에서 언어와 음악은 유사하다. 타인이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감정이나 정서적 뉘앙스를 리듬과 억양의 특성을 통해 전달 받으며, 반대로 자신도 리듬, 억양,

음색, 빠르기, 크기 등의 요소로 목소리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상대와 소통한다(정현주, 2011). 이러한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음악 활동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음악 활동 중 노래는 언어에 음률을 더한 것으로, 언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노래가 음악치료에 사용되는 범위는 광범위하며 주로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래 감상하기, 노래 토론하기 등의 기법이 있으며, 이 중 노래 부르기와 노래 만들기 활동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김종인, 2008). 노래의 가사는 단어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은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 또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과정은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교류 증진과 문장 완성 능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노래는 조음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노래 안에서 단어의 음절을 적절한 높낮이와 강약에 맞춰 소리 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Cohen, 1994). 이에 더하여 노래에 시각, 촉각, 공감각 등의 다양한 감각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아동이 언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정현주 외, 2006).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래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자폐,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도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입증된 바 있다(이경미 외, 2011; 최진영, 2015). 최애나(2012)는 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유아의 수용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경언(2013)은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어휘력과 자음 정확도를 향상시켰음을 밝혔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음악치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치료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언어·의사소통 영역의 연구는 심리·정서 영역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의사소통 영역의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래를 통해 아동의 어휘력이나 발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의 향상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적용하여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이해

1)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과 같이 인종이 다르거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부부,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생성된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결혼이민 가정, 이주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유형을 달리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최충욱 외, 2009).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형성을 주도한 것은 바로 국제결혼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 이주는 개인 혹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보다 안정된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정부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 후 정착지가 한국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백승대 외, 2014).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의하면 2015년 결혼이민자 수는 147,382명이며, 이 중 여자는 125,073명으로 남자 22,309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5).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와 함께 이주 근로자 역시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노동력에서의 이주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 이주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주근로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

을 형성하여 주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2017)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86,353명이며, 전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약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국적이 베트남, 타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 중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이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탈북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2,40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이후 2016년에는 1,418명의 북한주민이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5). 이처럼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국적이나 문화를 지닌 결혼이민자, 이주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형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및 특성

200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인구조사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집단은 다문화가정 자녀인구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 증가비율은 전체 다문화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2007년에 약 44,000명이었던 자녀 인구가 2013년에는 약 19만명, 2015년에는 약 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5).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연령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2007년의 경우 6세 이하

의 학령전기 아동이 전체의 약 60%, 초등학생이 약 32%로 주로 학령전기와 학령기 다문화 아동인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6세 이하의 학령전기 아동이 약 59%, 초등학생이 약 30%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나, 중고생이 약 21,973명으로 청소년기 자녀수가 전체의 11%에 달하였다. 이것은 학령전기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중도 입국 자녀가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중·고 다문화 학생수는 2016년 98,868명으로 2013년 55,498명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초·중·고 전체 학생 수의 약 1.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교육부, 2016).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적도 함께 다양해졌으며, 국적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통계조사 초기에 한국계 중국(조선족) 자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중국(한족) 자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이후는 두 국적 출신의 인구비율이 비슷해졌다.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조사 초기의 경우 주요 출신국 다문화가정 자녀 중 가장 낮은 약 5,000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과 일본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조사 초기에 비해 상승하고 있으며, 이외에 몽골, 태국, 대만, 러시아 등의 다문화가정 자녀 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5).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다문화 인구의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수의 증가,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제결혼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경에는 다문화가정 아동 수가 986,000명에 이르러 전체 영유아기 아동의 24.7%, 초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10%가 다문화가정 자녀일 것이라 추정된다(이삼식 외, 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존재한다. 다문화가정 자녀

들은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언어문제,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 학업 포기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역시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거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은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학습활동에는 제약을 받게 되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부진을 초래한다(조영달, 2006; 구정화 외, 2009; 최충욱 외,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가정 자녀와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상대적으로 또래와 다른 외모로 말미암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며, 특히 학교에서는 피부색과 생김새만으로도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므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한국 문화와 이주 부모의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박주현, 최덕경, 2011).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많은 수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소희, 이선희, 2013; 전경숙, 2008). 따돌림의 주된 이유는 '외모(피부색)가 달라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때문이다(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자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2014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36%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 0.86%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학교급별 현황에서는 다

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초등학교 0.8%, 중학교 1.2%, 고등학교 2.1%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6).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과 심리적 불안감,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빈곤 등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은 곧 교육기회의 소외로 이어져,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자아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조경서 외, 200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소통에서 오는 부적응, 외모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 등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들의 사회적응과 사회적 관계 형성,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환경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두 언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은 달라지게 된다.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대신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배소영, 김미배, 2010; 조영달, 2006; 오성배, 2005). 즉, 외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하여 한국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이중언어 환경으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유창한 모국어 대신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에, 언어발달에 필요한 언어 입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언어발달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이지연, 박금주, 2008; 오소정 외, 2009).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2년에 실시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다문화 아동의 60.7%가 또래의 일반 아동보다 언어능력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고위험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정은 외, 2014; 배소영 외, 2009; 오소정 외,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언어발달의 추이는 일반 아동과 유사하지만 발달의 정도가 느리고, 발달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연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화수, 이은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출신국 언어의 억양이나 조음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억양이나 조음 특성이 종종 나타나며(권미지, 2012), 아동의 학령기에는 이야기하기 과제 및 문제해결력이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적 한계는 어휘 능력이다(황상심, 정옥란, 2008).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문제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게 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김화수, 2011).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 이중언어 환경은 언어발달의 위험요인이 아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중언어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아동은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보다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배희숙, 2016). 다만, 모든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중언어 환경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국내 다문화가정의 환경은

이 점에서 특히 열악하다. 아동의 완전한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아동의 언어발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 중 환경적 요인은 다른 요인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순서는 단일언어 환경의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두 가지의 언어가 혼재된 상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언어발달의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는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면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언어발달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은 크게 형식(음운론, 구문론, 형태론), 내용(의미론), 사용(화용론)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주 언어인 한국어가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 억양이 전이되거나, 부적절한 조음음운발달을 보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세의 경우, 다문화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자음정확도와 모음정확도가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음에서의 종성생략과 모음에서의 오조음 현상을 보였다(권미지, 2012).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조음발달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마찰음과 파찰음, 긴장음과 기식음에서의 조음 오류를 보인다고 한다(임희현, 장진녕, 배희숙, 2014).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에 대한 연구는(양성오, 황보명, 2009; 권미지, 2009)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권미지(2009)와 김미진(2010)은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평가 결과, 다문화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인식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한다. 읽기와 쓰기 능력이 음운인식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조희숙, 2008)에 근거하면,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낮은 음운인식 능력은 아동의 읽기와 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구문발달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유승애, 이지현(2009)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장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박미단 등(2013)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발화시 복문 사용 빈도수가 더 낮았으며, 평균발화길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은 구문의 오류유형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이현정 외,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구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두 집단 간의 구문 오류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배승아 외, 2012). 이 연구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구문 오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구문의 세부오류유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모두 오류 범주에서 문법형태소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고, 세부오류 유형에서는 조사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다. 그러나 조사 오류 외의 세부오류 유형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인다. 보통 수준의 수용어휘 다문화가정은 조사 오류 다음으로 연결어미, 접속사, 성분누락의 순으로 구문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보통 수준의 수용어휘 일반가정은 성분누락, 연결어미, 접속사의 순으로 구문적 오류를 보이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능력이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지체되어 있다고 보고한다(최현욱, 황보명, 2009; 황상심, 2010). 이수정 등(2008)은 만 3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BNT-C)를 통해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K-BNT-C 점수, 아동의 외부교육시간, 가정 소득수준에 따른 어휘력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에는 어머니의 K-BNT-C 점수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K-BNT-C 점수 다음으로는 아동의 외부교육시간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소득수준은 아동의 어휘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소정 등(2011)은 5~9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과 함께 품사별 어휘 정확도와 반응속도 특성을 연구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품사별 어휘 정확도에서는 수용어휘의 경우 명사 이해 정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현어휘의 경우 명사와 동사 표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아동의 언어 교육 시 어휘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향상이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습득해야 할 어휘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여전히 어휘 영역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화용언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민성(2012)은 4~5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의 화용 능력 체크리스트 작성과 검사자의 검사용 동화책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검사를 통하여 화용 양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언어적 화용 능력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비언어적 화용 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김혜린 등(2014)은 생활연령이 8세, 10세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를 통해 화용언어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담화관리, 상황, 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

정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총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화용 하위영역에서는 상황, 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가정 아동과 다르게 다문화가정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화용능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의 화용언어 능력 차이는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노래중심 음악치료

1) 음악과 언어

인류의 삶에서 음악은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음악은 말처럼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언어와 유사한 의사소통 체계이다.

음악과 언어의 기능적 유사성으로 인해 음악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발화를 유도하는 치료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Thaut(2005/2009)에 의하면 언어중추가 손상된 언어 장애 환자의 치료에 노래하기는 유용한 치료 도구가 되며, 이는 음악과 언어가 신경학적으로 좌우 대뇌반구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기반에 둔다. 노래하기는 뇌의 우반구와 관련되어 뇌의 좌반구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의 구어 회복에 효과적인데, 이는 뇌의 우반구가 음악적 기술을 제공하여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를 노래로 표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Cohen, 1994). 말하기 기능의 회복에 음악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선율적 억양치료(MIT)를 사용한 연구에서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총 발화수, 평균발화길이, 분당 음절수, 따라 말하기, 이름 말하기, 구어 명료도 등의 전반적인 언어 수행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 노래가 언어 재활에 유용

한 중재전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이난복, 2000; 홍도경, 2005).

언어를 글로 기호화 하듯이 음악을 악보로 기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 언어는 유사하다. 언어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듣기, 소리내기, 악보 읽기, 악보 쓰기의 형태가 있다. 따라서 언어에서의 말을 글로 부호화(encode)하고 다시 글을 말로 해독(decode)하듯이, 음악에서도 소리를 악보로 부호화하고, 악보를 다시 악기연주나 목소리로 해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마송희, 2015). 언어와 음악의 관계는 언어의 형태와 음악 활동으로 관련지어 정리할 수 있다. 소리 듣기는 언어의 듣기와 음악의 감상하기로 대응되며, 소리 내기는 언어의 말하기와 음악의 노래(악기연주)하기와 연결된다. 부호를 소리로 만들기는 언어의 읽기와 음악의 악보 보고 노래(악기연주)하기와 상통하며, 소리를 부호로 만들기는 언어의 받아쓰기와 음악의 청음, 작곡하기로 이어진다(Hansen, Bernstorff, & Stuber, 2004; 마송희, 2015에서 재인용). 이처럼 음악과 언어는 형태와 해석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언어는 리듬과 억양을 가진다. 리듬은 소리나 음이 배열되는 시간적 요소와 관련되며 억양은 소리나 음의 높낮이와 관련된다. 언어의 리듬이 음악의 리듬으로, 언어의 억양이 음악의 멜로디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 언어는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언어의 리듬은 연속된 말의 단어들을 구문으로 묶고 구문 사이에 쉼을 두는 유형과 음절이 지속되는 유형, 음절에서의 강세 배치에 따른 유형으로 구성된다. 음악의 리듬도 언어의 리듬과 마찬가지로 여러 음을 묶은 악구나 박자(meter)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Patel, 2003). 리듬은 언어의 중요한 요소로, 말의 유창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언어 훈련에서 리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필수적이다(이현복, 1995). 리듬 능력 훈련이 언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조정민(2007)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언어의 리듬과 유사하게 만든 특정한 리듬과 멜로디를 활용한 구어 훈련을 통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횟수와 비유창성을 감소시켰고, 동시에 아동의 자연스러운 음운 처리와 언어 산출, 그리고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말더듬이 리듬과 억양의 장애라는 측면에서 리듬 강화 훈련은 깨진 언어 리듬에 질서를 가져오고 나아가 비유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과 언어는 신경학적 측면, 형태적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과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음악은 언어발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악과 언어의 통합적 적용인 노래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매개물이 될 것이다.

2) 언어발달을 위한 노래의 치료적 적용

노래는 아동의 언어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노래를 통한 언어교육은 지루해지기 쉬운 단순하고 반복적인 언어습득의 과정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일반 언어치료에 비해 더 많은 시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노래를 통한 언어발달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이 있다. 먼저,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소리의 강약, 억양, 발음, 조음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음운 발달을 위해 노래에 반복적인 음절이나 언어의 강세를 반영하는 멜로디를 적용할 수 있다. 윤혜연, 권도하(2012)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의 리듬을 반영한 노래 부르기가 실어증 환자의 조음 오류를 감소시키고, 조음 명료도를 증가시켜 환자의 조음 능력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

영빈(2013)의 연구에서도 노래를 통해 음운 능력을 향상시킨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의 교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를 포함한 동요 부르기를 통해 아동의 자음 및 모음 발음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유창성 장애는 구어의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받아 구어의 리듬과 속도가 부적절한 패턴이 되는 것으로 말더듬 현상이 대표적이다. 유창성 훈련을 위한 노래는 말의 흐름을 습득하기 위해 일반적인 말의 흐름을 반영한 리듬패턴을 사용하는데, 전래동요 ‘여우야 여우야’는 음절마다 강세를 주는 대신에 단어별로 강세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도록 유도한다(정현주 외, 2006).

구문론은 말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형태소와 낱말이 통합하여 구, 절, 문장 등을 이루는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 유아는 4세를 전후하여 대략적인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배희숙, 2016), 언어발달이 지연된 유아는 구문 발달의 속도도 늦어져 형태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형용사나 부정어의 위치가 뒤바뀌는 등 정확한 문법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구문론적 영역의 발달을 위한 노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일상생활을 가사로 표현한 곡이어야 한다. 아동은 언어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이 가사로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문장의 구조를 익힐 수 있다(김영태, 2003). 또한 노래의 가사를 바꾸는 활동은 기존의 가사와 대치하는 같은 성분의 언어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음절과 단어 및 구문을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권정해 외, 2015). 이에 더하여, 노랫말 바꾸기는 아동의 부적절한 구문의 사용과 짧은 문장만을 사용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수연, 2006).

의미론은 언어의 상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고 저장하며 발달한다. 수용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지시 따르기에 제한이 있는 아동에게 몇 가지의 지시어들을 노래로 만들어 전달하면 말로만 지시했을 때보다 수행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음악이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차원적인 자극이므로 아동의 주의 집중력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정현주 외, 2006). 아동의 어휘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 음악 활동 중 직접 만지거나, 표현할 수 있는 명사 혹은 동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활동의 목표에 따라 위치, 방향, 크기, 시간 등의 상대적 개념을 가사로 담고 있는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아동은 노래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아동은 언어에 익숙해지고, 노래의 리듬과 멜로디는 아동의 재인 능력을 향상시켜 언어적 문제를 가진 아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어휘를 습득하게 한다(박소연, 2004). 정인지체 아동의 의미론적 발달을 위한 연구에서 엄진명, 이필상(2012)은 신체표현 활동을 이용한 노래 부르기가 아동의 수용·표현 어휘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으며, 정영주(2008)는 가사의 표현에 맞는 시각자료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아동이 크기, 길이, 높이, 속도와 같은 상대어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화용론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이나 대화에서 전반적인 이야기의 의미 혹은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행동,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표정이나 억양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의 화용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래의 가사를 통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일정 부분에서 아동이 직접 언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안기숙과 유은정(2010)은 자연스러운 문답 형태의 노래가 발달장애 아동의 화용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흔히 접하는 노래의 가사를 문답식으로 개사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인사하기, 지시에 반응하기, 표현하기와 같은 화용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이경숙(2009)의 연구에서도 노래를 통해 화용 기술을 향상시킨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음악 만들기를 통해 일방적인 말하기를 진행하는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화답하기, 교대로 말하기, 주제유지와 전환하기와 같은 화용적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다. 사회적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아스퍼거 장애아동을 위해 아동이 말하는 내용을 노래의 주제로 만들거나, 번갈아 응답하는 형식의 노래를 부르며 대화 흐름의 규칙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노래는 즐겁게 놀며 언어를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을 증진시킨다. 많은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는 아동들이 매우 흥미 있어 하는 활동으로, 기존의 가사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음절수와 의미, 그리고 문장 성분 등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마송희, 2015).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 활동이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높였다는 연구(김혜영, 2013; 손미순, 최애나, 2011; 장혜성, 2014; 장혜원, 2012)들은 노래의 다양한 치료적 기능들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 만 5세~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센터 내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남·여 아동 3명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감각장애나 인지적 문제가 없으나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 결과에서 언어발달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아동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	성별	생활연령	어머니 국적	언어발달 연령	
				수용언어	표현언어
A	남	51개월	베트남	41개월	35개월
B	여	63개월	베트남	47개월	41개월
C	여	83개월	베트남	44개월	41개월

2. 측정도구

-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이 개발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취학 전 아동(2~6세)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수용언어 발달연령(Receptive Language Age : RLA), 표현언어 발달연령(Expressive Language Age : ELA), 통합언어 발달연령(Combined Language Age : CLA)을 산출한다.

검사의 내용은 수용언어영역 45문항, 표현언어영역 45문항의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영역은 모두 15개의 언어발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들은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및 기록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세션의 전 과정을 촬영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 회기마다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3. 연구설계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설계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대상	사전검사	음악치료	사후검사
아동 A, B, C	O ₁	X	O ₂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자료 분석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 3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3일부터 2017년 4월 14일까지 주 1~2회, 회기당 4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4. 음악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총 12회기에 걸쳐 3명의 아동에게 개별 세션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활동 한 회기의 구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음악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단계	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hello song을 부르며 인사하기 touch song을 부르며 관계형성하기
중심활동	30분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
마무리	5분	활동 후 느낀점 나누기 goodbye song을 부르며 인사하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에서는 노래의 가사가 인사말로 이루어진 hello song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고, 이를 통해 아동이 음악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에는 단순한 선율과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가사로 이루어진 touch song을 부르며 치료사와 아동이 악수, 하이파이브, 간지럼 태우기 등의 동작을 나눔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중심활동 단계에서는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을 위해 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의 의미론적 측면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어휘와 개념을 포함한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활동을 하였으며, 언어의 구문론적 발달을 위해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노래의 가사를 채우거나, 바꾸는 활동을 하며 아동이 문장의 성분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간접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노래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며 아동이 화용적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중심활동 후의 자신의 느낌을 악기연주로 표현해보고, 이를 다시 말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언어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goodbye song을 부르며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회기별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에 따른 발달 이정표를 근거로 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수용-표현적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활동 내의 목표 발음은 한국어언어병리학회(1996)의 연령별 음소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발음으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및 치료적 근거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회기별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목표	활동내용	치료적근거
1	· 라포 형성 · 관악기 연주	· 인사노래 ·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 카쥬, 휘슬 연주	·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활동으로 아동에게 편안한 음악적 환경과 흥미를 제공하여,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관악기를 불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발성기관의 이완 및 호흡 조절을 돕는다.
2	· 신체부위 기능 이해 · 과거시제 사용	· 노래의 가사가 설명하는 신체부위 지적하기 · 과거시제(갸어/먹었어)를 사용하여 노래 부르기	· 직접 만질 수 있는 명사를 포함한 노래를 부르며 어휘를 확장시키고, 가사를 통해 각 신체부위의 기능을 확인, 이해하도록 돕는다. · 노래의 가사 중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동이 언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 연관된 어휘 이해 · 미래시제 사용	· 노래에서 제시한 단어와 연관된 그림카드 고르기 · 미래시제(갈래요/먹을래)를 사용하여 노래 부르기	· '짝을 찾아 봐요'와 같은 단순한 지시어를 사용한 노래는 수용적 언어발달이 제한된 아동의 지시 따르기, 즉 수용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아동이 단어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노래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고, 치료사와 역할을 바꿔서 아동이 노래로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한다.
4	· 행위자+목적+ 행위 문장 이해 · 반대말 사용	· 노래의 가사와 일치하는 그림카드(행위자, 목적, 행위) 고르기 · 노래에서 제시하는 단어(크다, 빠르다, 밝다 등)의 반대말을 주어진 괄호 안에 가사로 넣어 부르기	·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가사에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다 (김영태, 2003). · 주고 받는 형식의 노래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의 차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답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표현을

			<p>듣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의 리듬과 멜로디는 아동의 재인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즐겁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박소연, 200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개념 이해 · 색 이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의 가사가 제시하는 수 만큼 복 연주하기 · ‘알록달록 예쁜 중’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색의 핸드벨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에서 제시된 수 만큼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이 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다양한 색의 악기를 연주하며 색을 인식하고, 원하는 색의 악기를 연주할 때, 노래를 부르며 색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색깔 어휘를 사용하고 습득하게 한다. · 음악은 언어보다 다차원적인 자극이므로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활동 참여율과 수행률을 높일 수 있다(정현주 외, 200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상태어 이해 · 파찰음 (ㄱ, ㅋ, ㆁ) 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쁨, 슬픔, 화남의 상황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를 들으며 상황에 맞는 표정 카드 고르기 · ‘부엌에 가면’ 노래를 부르며 ‘ㄱ’, ‘ㅋ’, ‘ㆁ’을 포함한 단어 발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과 관련된 노래를 통해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노래를 부르며 ‘ㄱ’, ‘ㅋ’, ‘ㆁ’의 발음을 포함하는 단어를 발화하게 하고, 특히, 두 음절 혹은 세 음절의 단어를 노래함으로써 아동의 부드러운 언어 산출을 돕는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의 질문에 대답 · 목적격 조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노래 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답하기 · 노래의 주어진 괄호 안에 목적격 조사(~를)를 가사로 넣어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형태의 노래에서 아동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게 함으로써, 대화 흐름의 규칙을 인식하고 교류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한다(이경숙, 2009). ·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아동이 문장의 성분을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권정해 외, 201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이해 · 사동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의 특징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를 듣고 알맞은 계절 말하기 ·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사동사(먹여줘, 입혀줘,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활동을 통해 가사에 나타난 계절 및 계절관련 단어를 습득하여 어휘를 증가시킨다. · 노래의 가사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따라 행동하는 활동은 아동의 흥미

		를 유발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겨줘 등)를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 노래의 가사를 만드는 활동은 아동이 자신이 겪을 상황을 노래로 먼저 경험하고, 필요한 언어적 표현을 미리 연습하도록 돕는다.
9	· 은유적 표현 이해 · 마찰음 (ㄱ, ㅎ) 모방	· 단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를 듣고 그에 해당하는 그림카드 고르기 · 노래의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ㄱ’과 ‘ㅎ’ 발음 모방하기
		· 노래 가사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의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의 화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노래의 반복되는 구조에 따라 ‘ㄱ’과 ‘ㅎ’의 발음을 포함하는 음절을 모방하며, 각 음절마다 각각 다른 멜로디를 적용하여 발음의 명료도를 높이도록 한다.
10	· 방향 이해 · 비교급 사용	· 왼쪽, 오른쪽의 방향으로 동작하기를 지시하는 노래를 따라 알맞게 반응하기 · ‘누가누가 더 ~할까?’ 노래를 부르며 비교급 표현(‘더’+형용사) 사용하기
		· 방향을 지시하는 노래에 맞춰 동작활동을 함으로써 왼쪽, 오른쪽의 방향 개념을 인지하게 하고, 반복적인 동작활동을 통해 아동이 습득한 어휘를 장기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 크기, 길이, 양 등의 개념을 비교급으로 표현한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단어의 의미와 그 내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박소연, 2004). · 시각자료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활동은 아동이 어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돕는다.
11	· 소유대명사 이해 · 문장 모방	· 노래를 듣고 ‘내 눈’, ‘너 눈’, ‘내 입’, ‘너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 문장 표현으로 이루어진 노래 따라 부르기
		· 노래를 부르며 ‘나’와 ‘너’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사의 내용에 맞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봄으로써 습득한 어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결문장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모방하여 부름으로써 아동의 문장구성 능력과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2	· 썸의 단위 사용 · 종결	·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썸의 단위(명, 마리, 대 등) 사용하기
		·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래는 아동이 노래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하며, 이 구조에 어휘를 넣어 노래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활동은 회기별 목표를 바탕으로 노래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구성하였다. 1회기는 치료사와 아동의 관계 형성과 아동의 음악적 환경 적응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이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취주악기를 부르며 아동이 긴장을 해소하고 음악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였다.

2회기는 신체부위의 기능 이해와 과거시제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이 노래를 통해 제시되는 설명이나 질문을 이해하고 주어진 구조 안에서 신체동작 혹은 언어표현으로 반응하게 하였다.

3회기는 연관된 어휘를 이해하는 것과 미래시제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가사로 표현한 간단한 지시어나 의문문을 듣고 노래의 정해진 부분에서 아동이 언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관 어휘와 미래시제를 발화할 수 있게 하였다.

4회기는 ‘행위자+목적+행위’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반대말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가사에 포함된 노래를 듣고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게 함으로써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인식하게 하였다. 주고 받는 형식의 노래를 통해 반대말 어휘를 발화하게 하였고, 제시된 어휘에 따라 노래의 음량과 빠르기, 조성을 상반되게 조절하여 아동이 어휘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5회기는 수 개념 이해와 색 이름 사용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노래의 가사에서 표현된 숫자와 색깔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숫자와 색깔의 개념을 습득시켜 주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6회기는 감정상태어 이해와 파찰음(ㄱ, ㅋ, ㆁ) 발화를 목표로 하였다.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 상황을 노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인식하게 하였다. 파찰음 발화를 위해 노래를 부르며 목표발음이 포

함된 1음절, 2음절, 3음절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하였다.

7회기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목적격 조사의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문답 형태의 노래를 통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였다. 문장의 목적어를 같은 성분의 다른 단어로 대입하여 노래하게 함으로써 목적격 조사의 정확한 사용을 이해하게 하였다.

8회기는 사계절 이해와 사동사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계절의 특징을 표현한 노래와 계절 사진을 통해 사계절을 구분하고, 계절과 관련한 어휘를 습득하게 하였다. 사동사 사용을 위해 ‘인형 옷 입히기’ 활동을 하였고, 노래를 통해 아동이 직접 사동사를 표현하면 그에 맞게 행동해줌으로써 아동이 사동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9회기는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것과 마찰음(ㅅ, ㅎ) 모방을 목표로 하였다. 비유의 대상에 다양한 사물을 빗대어 노래함으로써 언어의 간접적인 표현, 즉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게 하였다. 아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마찰음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조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10회기는 방향 이해와 비교급 단어 사용을 목표로 하였다. 노래와 동작활동을 통해 방향을 표현한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였다. 상대적 개념을 가지는 단어를 노래 안에서 비교급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동이 단어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11회기는 소유대명사 이해와 문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소유대명사 ‘내’와 ‘네’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활동에서는 ‘내’와 ‘너’로 변경하여 노래함으로써 아동이 소유대명사 개념을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하였다. 가사가 겹문장으로 구성된 노래를 부를 때, 조사나 문장의 어미까지 정확하게 따라 부르게 함으로써 아동이 완전한 문장을 발화하게 하였다.

12회기는 썸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동물, 자동차, 책 등이 복수로 나타난 그림 자료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썸의 단위를 경험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동의 언어능력 평가는 전문 언어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또한 아동의 언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치료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아동의 참여 과정과 언어적 변화를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만 5세~7세 다문화가정 아동 3명에게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실시한 후, 사전·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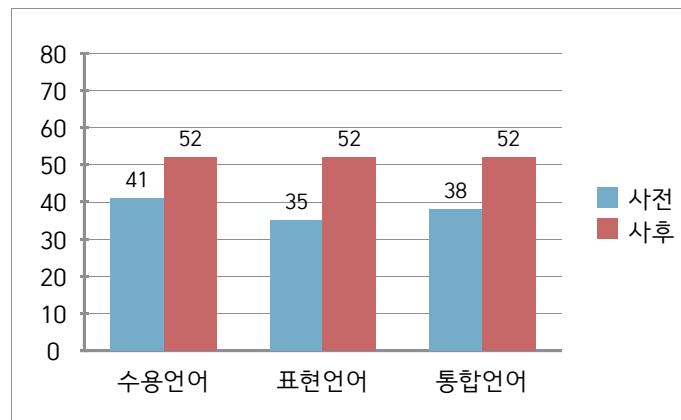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

대상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표 IV-1>, <그림 IV-1>, <그림 IV-2>, <그림 IV-3>과 같다.

<표 IV-1>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변인	아동 A		아동 B		아동 C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수용언어 발달연령	41개월	52개월	47개월	64개월	44개월	58개월
표현언어 발달연령	35개월	52개월	41개월	64개월	41개월	52개월
통합언어 발달연령	38개월	52개월	44개월	64개월	43개월	55개월

1) 아동 A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그림 IV-1> 아동 A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아동 A의 수용언어는 41개월의 수준, 표현언어는 35개월의 수준으로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가 지체되어 있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수용언어는 52개월, 표현언어도 52개월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7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수용언어는 11개월, 표현언어는 17개월만큼의 성장을 보여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아동의 통합언어도 14개월 향상되었다.

A 아동은 2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신체부위의 기능을 말한 후 그에 맞는 신체부위를 지적하게 하였을 때 전혀 반응하지 못하였다. 이후 치료사가 “냄새 맡는 곳은, 코”, “소리 듣는 곳은, 귀” 등의 가사로 노래하며 직접 신체부위를 지목하는 활동을 모방하게 한 결과, 아동은 치료사의 신체부위기능과 위치를 묻는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신체부위(코, 귀, 눈, 입, 머리)를 지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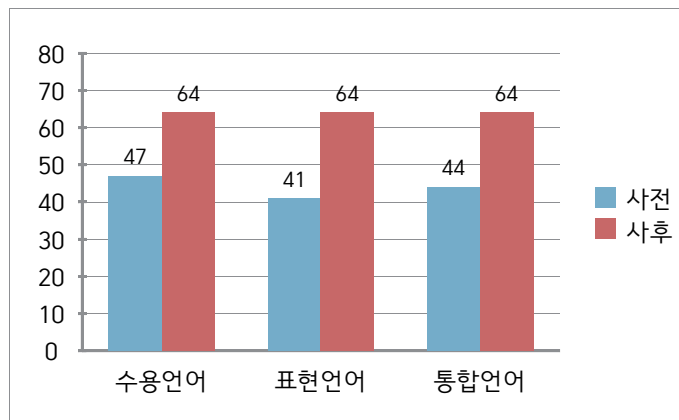
3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에 갈래요’ 라는 미래시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머리 아프고 기침이 나면 어디로 갈래요?”라고 노래로 질문하였을 때 아동은 “병원”이라고 답하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병원에 갈래요’, ‘미용실에 갈래요’ 등의 대답으로 노래한 결과, 아동은 치료사의 “~로 갈래요?” 질문에 “~에 갈래요”라는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다.

5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노래로 제시하는 수 만큼 아동이 악기를 연주하게 하였을 때 아동은 1~10까지의 수 개념만을 이해하여 악기를 열 번까지 연주할 수 있었다. 이후 치료사는 툰렛게임을 통해 아동과 숫자 세기를 반복하였고, 그 결과 아동은 숫자를 30까지 정확한 순서로 말하였으며, 악기 연주 활동에서도 숫자를 세며 북을 30번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8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사동사를 사용한 노래를 부르고 아동이 그대로 행동하게 하였을 때 아동은 적절하게 반응 하였으나, 아동이 직접 사동사를 말하게 하였을 때는 ‘입혀주세요’를 ‘입어주세요’라고, ‘먹여주세요’를 ‘먹어주세요’라고, ‘신겨주세요’를 ‘신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사동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파랑 바지 입혀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여주세요”, “빨강 구두 신겨주세요”, “분홍 모자 씌워주세요”라고 노래하며 가사대로 행동하게 한 결과, 아동은 사동사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2) 아동 B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그림 IV-2> 아동 B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아동 B의 수용언어는 47개월의 수준, 표현언어는 41개월의 수준으로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가 지체되어 있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수용언어는 64개월, 표현언어도 64개월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7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수용언어는 17개월, 표현언어는 23개월만큼의 성장을 보여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아동의 통합언어도 20개월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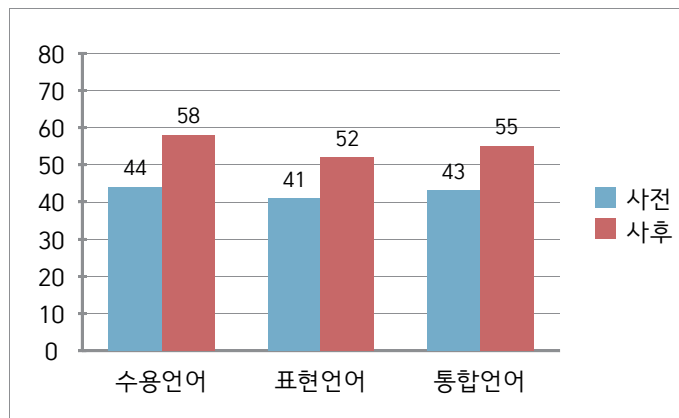
B 아동은 6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감정을 말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에 맞는 표정카드를 고르게 하였을 때 아동이 화난 얼굴은 알맞게 선택하였으나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은 반대로 선택하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감정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며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의 표정카드를 구분하는 활동을 한 결과, 아동은 기쁜 감정에서 웃는 얼굴, 슬픈 감정에서 우는 얼굴, 화난 감정에서 화난 얼굴을 알맞게 구별하여 선택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7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아동에게 노래로 “00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동은 “감자튀김”, “케이크”와 같이 단어만을 사용하여 대답하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00는 ~을 먹어요” 혹은 “00는 ~를 해요”와 같은 목적격 조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반복하여 부른 결과, 아동은 치료사의 “00는 무엇을 먹을까?” 혹은 “00는 무엇을 할까?”의 질문에 단어만으로 대답하지 않고 주어와 목적격 조사, 그리고 서술어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게 되었다.

10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노래의 가사로 아동이 움직일 방향을 지시하였을 때 아동은 왼쪽, 오른쪽의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노래에서 지시하는 방향에 맞춰 돌거나, 손 혹은 깃발을 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동작활동을 반복한 결과, 아동은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인지하고 습득하여 정확한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12회기 활동에서 치료사가 사람, 강아지, 버스가 복수로 나타난 사진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숫자를 세어 보게 하였을 때 아동은 세 가지 모두를 “n개”라고 말하며 수를 세었다. 이후 치료사가 사람은 ‘명’의 단위로, 강아지는 ‘마리’의 단위로, 버스는 ‘대’의 단위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아동이 이를 모방하여 부르게 한 결과, 아동은 ‘한 명’, ‘두 명’, ‘한 마리’, ‘두 마리’, ‘한 대’, ‘두 대’와 같이 대상에 맞는 셈의 단위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3) 아동 C의 언어능력 향상 결과



<그림 IV-3> 아동 C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사전·사후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에서 아동 C의 수용언어는 44개월의 수준, 표현언어는 41개월의 수준이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수용언어는 58개월, 표현언어는 52개월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7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수용언어는 14개월, 표현언어는 11개월만큼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아동의 통합언어도 12개월 향상되었다.

C 아동은 4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단어를 제시하고 아동에게 반대말을 말하게 하였을 때 ‘빠르다’의 반대말 ‘느리다’와 ‘밝다’의 반대말 ‘어둡다’를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후 치료사가 반대말 어휘의 특징을 음악에 반영하여 빠르기과 조성, 음량 등을 상반되게 조절한 노래를 부르며 반대말 어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아동이 모방하여 부르게 한 결과, 아동은 ‘빠르다’와 ‘느리다’, ‘밝다’와 ‘어둡다’, ‘많다’와 ‘적다’ 등의 반대말 어휘를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7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아동에게 노래로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요?”, “추우면 어떻게 하지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

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어떻게?’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가사로 한 노래를 반복하여 부른 결과, 아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의 질문에 “배고프면 밥 먹어요”, “비가 오면 우산 써요”, “추우면 외투 입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9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아동에게 ‘ㅅ’과 ‘ㅎ’을 포함하는 음절을 발화하게 하였을 때 아동의 ‘ㅅ’ 발음은 ‘ㄷ’ 발음으로, ‘ㅎ’ 발음은 ‘ㅇ’ 발음으로 대치되는 오류를 보였다. 이후 치료사가 아동이 ‘ㅅ’ 발음을 발화하기 직전에 혀를 윗니 가까이 대고 공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면서 마찰될 때 나는 소리를 연습하게 한 결과, 아동은 노래 가사 중 ‘술술’, ‘살살’을 발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사가 노래 가사 중 ‘ㅎ’ 발음을 포함하는 각 음절마다 다른 멜로디를 적용함으로써 아동은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를 발화할 수 있게 되었다.

10회기의 활동에서 치료사가 노래로 “누가누가 더 클까?”, “누가누가 더 길까?”라고 질문하고 이를 ‘더’+형용사를 사용한 비교급으로 표현하게 하였을 때, 아동은 질문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였지만 비교급 표현은 말하지 못하였다. 이후 치료사와 함께 아동이 “더 크다”, “더 작다”, “더 길다”, “더 짧다”, “더 많다”, “더 적다”를 가사로 포함하는 노래를 반복한 결과, 아동은 크기, 길이, 양의 개념을 비교급 어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강원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자녀 3명을 대상으로 12회기의 음악치료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전후에 전문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 아동의 사전과 사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A 아동의 수용언어는 사전 41개월 수준에서 사후 52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었고, B 아동의 수용언어는 사전 47개월 수준에서 사후 64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었다. C 아동의 수용언어는 사전 44개월 수준에서 사후 58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어 실험에 참여한 아동 모두가 사전보다 사후의 수용언어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 아동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수 개념을 확장시켰고, 감정 상태어와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였으며,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인지하고 습득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래가 아동의 어휘 습득과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며 언어에 익숙해진 후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었고, 노래에서 제시된 어휘의 앞, 뒤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크기나 방향과 같은 상대적 개념 습득을 위한 노래에서는 가사에서 표현된 개념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

간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래 부르기 활동은 수용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어휘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A 아동의 표현언어는 사전 35개월 수준에서 사후 52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었고, B 아동의 표현언어는 사전 41개월 수준에서 사후 64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었다. C 아동의 표현언어는 사전 41개월 수준에서 사후 52개월 수준의 언어능력으로 향상되어 실험에 참여한 아동 모두가 사전보다 사후의 표현언어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 아동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반대말 어휘와 비교급 어휘를 확장시켰고, 목적격 조사를 사용한 문장을 말하였으며, 시제와 사동사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이 아동의 구문적 표현과 화용적 표현의 사용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노래를 부르며 문장의 구조를 익혔으며, 목적격 성분의 가사를 바꾸는 활동을 통해 단어와 구문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동의 부적절한 구문 사용은 감소되고 문장 구성력은 향상되었다. 또한 아동은 문답형식의 노래를 부르며 주고받는 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치료사의 노래에 반응하거나 대답하는 등 적절한 화용적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래 만들기 활동은 표현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구문능력과 화용능력을 발달시켜 아동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초기, 아동들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치료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치료사와의 언어적 소통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음악활동을 거듭하며 아동들은 점차 큰 소리로 말하였고, 치료사와의 대화에서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말하

는 변화를 보여 치료사와의 언어적 소통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악활동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아동에게 자신감을 주어 아동이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음악 활동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악기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청각, 시각, 촉각의 흥미로운 다감각적 자극을 제공하여 아동이 목표 단어나 문장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노래와 함께 악기나 교구를 활용한 활동이 노래만 부른 활동에 비해 목표 수행률이 더 높았으며, 목표의 달성 시간도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다감각적 도구들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치료적 중재의 대상을 언어발달의 시기에 있는 아동, 특히 급진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아동의 불규칙적인 언어발달을 고려하여 대상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은 대체로 기질적인 문제나 결함 보다는 언어입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도 얼마나 많은 양의 언어를 입력받는지, 혹은 얼마나 질 좋은 언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조기 개입, 그리고 언어입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과 표현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노래를 활용한 언어교육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다른 선행연구들(안기숙, 유은정, 2010;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장혜성, 2014; 장혜원,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을 위한 치료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실험의 기간과 회기가 다소 짧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종결 이후의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지속성도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자녀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성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객관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두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치료실 외의 환경에서 치료의 효과가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녀와 양육자가 가정에서 함께 활동을 복습하고 적용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증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연구를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금화, 황보명 (2010). 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9(1), 143-158.
- 강은희 (2016).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표현 능력. **언어치료연구**, 24(4), 1-8.
- 공미경, 김성수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복문 발달 특성. **언어치료연구**, 21(4), 71-85.
- 교육부 (2015). 2015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 www.moe.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www.moe.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교육부 (2016). 2016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 www.moe.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09).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동문사.
- 권미지 (2009). 단어 단위 측정에 의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분석. **언어치료연구**, 20(4), 163-175.
- 권미지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 : 변별자질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1(3), 23-36.
- 권정해, 최성열, 최은희 (2015). 전래동요를 활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4(2), 109-122.
- 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문헌 분석. **중복 · 지체부자유연구**, 53(4), 283-306.
- 권희진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원예치료의 지속적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군자 (1983). **자폐아의 음악요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언 (2013). **노래중심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아동의 어휘력발달과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민성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및 화용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성수, 이상경 (2015). 2,4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 의사소통의도. **언어치료연구**, 24(1), 1-14.
- 김수진 (2015). 다문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 현황 조사연구. **언어치료연구**, 24(3), 89-102.
- 김영란, 김영태 (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73-88.
- 김영태 (2003).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하, 정경희 (2015). 초등학교 1-3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형태소인식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2), 319-330.
- 김정은, 김영태, 오소정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향상도에 따른 어휘발달 변인 종단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9(1), 60-70.
- 김종인 (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과주: 한국학술정보.
- 김혜영 (2013). 놀이동요 활동이 통합학급 유아의 사회성 및 음악적 흥미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53-82.
- 김혜영, 전은주 (2010). 중등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와 교수-학습 양상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38, 5-31.

- 김화수 (2011).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60-175.
- 김화수, 이은경 (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209-226.
- 김혜린, 한선경, 김영태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수교육**, 13(3), 371-385.
- 마송희 (2015). 유아음악과 언어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 및 교수방법에 관한 문헌연구. **유아교육연구**, 35(5), 335-359.
- 박미단, 성순옥, 김영희 (2013).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83-103.
- 박소연 (2004).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2), 38-51.
- 박주현, 최덕경 (2011).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서울: 창지사.
-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 146-156.
- 배소영, 광금주,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 18(4), 165-184.
- 배승아, 김영태, 오소정 (2012). 수용어휘 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및 구문 오류 특성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2(4), 81-104.
- 배희숙 (2016). **언어발달**. 서울: 학지사.
- 백승대, 이정화, 김한곤, 서정연, 정용교 (2014).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대구: 정림사.
- 법무부 (2015).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moi.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애인구추계 및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부.
- 손미순, 최애나 (2011). 전래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학령기이전 아동의 정서기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135-158.
- 안기숙, 유은정 (2010). 동요 부르기의 통합적 활동이 발달장애아동의 어휘력 및 화용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483-500.
- 양성오, 황보명 (2009).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37-56.
- 엄진명, 이필상 (2012). 신체표현활동을 이용한 노래부르기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2), 31-48.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3), 61-83.
- 오소정, 김영태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언어장애 아동의 어휘지식 및 구어처리 과제 수행 특성. **언어치료연구**, 23(1), 55-88.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오소정, 김영태, 임동선 (2011). 다문화가정아동의 품사별 어휘정확도 및 반응속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137-161.
- 유승애, 이지현 (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육아지원연구**, 4(2), 51-67.
- 윤혜연, 권도하 (2012). 노래부르기 과업이 브로카 실어증자의 읽기와 조음 능

- 력에 미치는 영향. **재활과학연구**, 30(1), 11-22.
-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경숙 (2009).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음악 만들기 경험'의 의미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103-123.
- 이난복 (2000). 멜로디억양치료(Melodic Intonation Therapy)가 비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언어재활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 55-74.
-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희, 이선혜 (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24-131.
- 이수연 (2006). 3-6세 유아의 영역별 발달 촉진을 위한 단계별 음악치료 교육 활동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3(1), 29-62.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지연, 박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현복 (1995). **한국어의 표준발음**.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정, 김영태, 윤혜련 (2008). 담화유형에 따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구문사용 특성: 대화와 설명 담화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103-121.
- 임희현, 장진녕, 배희숙 (2014). 한국-중국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오류 패턴. **다문화의사소통**, 4.
- 장혜성 (2014). 또래와의 구조화된 노래활동이 어린이집에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8(1), 1-21.

- 장혜원 (2012). 노래활동이 통합보육기관 발달지체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185-206.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우홍 (2009).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다문화 사회 연구회**, 2(2), 13-15
- 정영주 (2008). 음악을 이용한 언어중재가 정인지체아동의 상대어 개념 습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정현주 외(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정민 (2007). 말더듬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21-30.
- 조희숙 (2008). 학습장애아를 위한 음운인식 지도 방안. **학습장애연구**, 5(2), 82-105.
- 최미현, 정미란, 황민아 (2012). 학령 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격조사와 보조사 산출. **언어청각장애연구**, 17, 307-321.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제 2판)**. 서울: 학지사.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영빈 (2013). 동요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22, 85-120.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충욱, 모경환, 김연권, 박성혁, 조난심, 오은순, 설규주, 차조일, 한용택, 우희숙, 서종남 (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최현욱,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www.unikorea.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하승민, 고미옥 (2011).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표현과 미술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2), 21-3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20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한국언어병리학회 (1996). **말, 언어 장애 연구**. 파주: 군자출판사.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www.moi.go.kr에서 2017년 4월 4일 자료 얻음.
- 홍도경 (2005). MIT(Melodic Intonation Therapy) 중심의 음악활동을 이용한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증가에 대한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57-67.
- 황상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상심 (2011).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파주: 한국학술정보.
- 황상심,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 관련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Cohen, N, S. (1994). Speech and song: Implication for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12(1), 8-13.

- Grant, R. E. (1989). Music therapy guidelines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Music Therapy Perspective*, 6(1), 8-22.
- Hansen, D., Bernstorff, E., Stuber, G. M. (2004). The music and literacy connection. Reston, VA: MENC.
- Michael H. Thaut. (2009). Rhythm, Music, and the Brain. 차영아 (역). 리듬, 음악, 그리고 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Patel, A. D. (2003). Rhythm in language and music,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99(1), 140-143.

ABSTRACT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 Eun Ji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ased on singing on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Gangwon-do. There were 6-month or wider disparities between their language development ages and chronological ages on the test of PRES.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provided from March 3 to April 14, 2017, and total 12 sessions were conducted for 40 minutes per session for once and twice a week.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PRES was utilized, and the children's pretest and posttest scores were compared. Their languages and behaviors were described by observing and analyzing what changes they underwent.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served to improve receptive language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s of PRES post - test, all three children showed improvement of the receptive language. Second,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served to improve expressive language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s of PRES post - test, all three children showed improvement of the expressive language. That is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have proven to improve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al level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king language ability of the children improved.

The finding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can be a therapeutic intervention method for improving the language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부 록

<부록 1> 수용언어 발달 평가지

<부록 2> 표현언어 발달 평가지

<부록 1> 수용언어 발달 평가지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체	하위문항						언어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인지/ 의미론	음운/ 구문론	화용론
19-21 개월	1. 부정어 이해	2/3										
	2. 일상사물 이름 이해	4/4										
	3. 신체부위 이름 이해	3/3										
22-24 개월	4. 동물 이름 이해	4/4										
	5. 동작어 이해:동작수행	4/5										
	6. 소유자 개념	3/4										
25-27 개월	7. 크기개념 이해	2/2										
	8. 부정적 상태 이해	2/2										
	9. 사물의 기능 이해	4/5										
28-30 개월	10. 지시따르기:그림지적	2/2										
	11. 동작어 이해:그림지적	3/4										
	12. 의문사 이해	3/3										
31-33 개월	13. 세부적인 신체부위 이름 이해	3/4										
	14. 위치부사어 이해	3/3										
	15. 사물의 세부부분 이해	3/4										
34-36 개월	16. 동시 연결어미(-면서)이해	2/2										
	17. 지시따르기:두 가지 동작	2/2										
	18. '밤/낮'의 이해	2/2										
37-39 개월	19. <부정-행위>문장 이해	2/2										
	20. 과거/현재진행 문장 이해	2/2										
	21.길이개념 이해	2/2 3/4										
40-42 개월	22. '같다/다르다'이해	2/2										
	23. 범주어 이해	2/3										
	24. 신체부위의 기능 이해	3/4										
43-45 개월	25. 연관된 어휘 이해	3/3										
	26. <행위자+목적+행위>문장 이해	3/4										
	27. 수여자(여격)이해	2/2										
46-48 개월	28. 수 개념 이해	3/4										
	29. 감정상태어 이해	3/3										
	30. 복수 이해	2/2										

<부록 2> 표현언어 발달 평가지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 체	하위문항						언어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인지/ 의미론	음운/ 구문론	화용론
19-21 개월	1. 호칭을 포함한 두낱말 문장 사용	보고										
	2. 20개의 어휘 사용	보고										
	3. 크기 및 양의 개념 표현	보고										
22-24 개월	4. /ㄱ/계열 소리 모방	3/3										
	5. 주격 및 공존격 조사 사용	2/2										
	6. <목적+행위> 문장 사용	보고										
25-27 개월	7. 새 낱말 문장 만들기	보고										
	8. 부정어 사용	1/2										
	9. 단순한 질문 사용	보고										
28-30 개월	10. 대명사 사용	1/2										
	11. 신체 상태나 감정 표현	보고										
	12. '이유'연결어미 사용	1/2										
31-33 개월	13. 의문사 사용	보고										
	14. 일상사물의 기능 설명	3/3										
	15. 상황 설명	2개 이상										
34-36 개월	16. 과거시제 사용	보고										
	17. 미래시제 사용	보고										
	18. 이유를 포함하는 복문 사용	보고										
37-39 개월	19. 질문에 대한 대답:'언제'	2/3										
	20. 등위결 사용	보고										
	21. 어려운 의문사 사용:'왜','어떻게'	보고										
40-42 개월	22. 위치 부사어 사용	3/4										
	23. '조건'연결어미 사용	보고										
	24. 반대말 사용	2/3										
43-45 개월	25. 색이름 사용	5/5										
	26. 익숙한 이야기 재구성	1/2										
	27. 질문에 대한 대답:'어떻게'	3/3										
46-48 개월	28. 목적격 조사 사용	3/3										
	29. 사동사 사용	2/2										
	30. 비교급 사용											

